



# 지혜의 말씀

불기 2570년 1월 / 통권 538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시와 불교의 만남

# 법구경 (法句經)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今生)에서 즐거워하고  
내생(來生)에서 즐거워하고  
두 생에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며  
참으로 즐거워한다.

造 喜 後 喜 行 善 兩 喜  
조 희 후 희 행 선 양 희

彼 喜 惟 歡 見 福 心 安  
피 희 유 환 견 복 심 안

- 법구경 게송 16

#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판단력의 쇠퇴 / 운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11 / 자경스님



표지그림/원성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성도재일 철야법회 안내

입춘·삼재소멸기도 안내

천일기도 안내

설날합동차례재 안내

정초기도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제 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 판단력의 쇠퇴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텍사스 테크놀로지 대학의 마이클 핀케 교수는 사람은 60세가 지나면 금융에 대한 판단력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와, 보험 가입, 신용 축적, 사업의 전개 등 돈의 관리에 따른 정보 흡수와 상황 판단에 따른 능력도를 측정한 결과 60세가 넘으면 평가 점수가 2%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60대에는 가능성 선에도 미달하는 59%에 불과하다고 하며, 80대엔 30%로 대폭 하락했다고 한다.

더 나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객관적 능력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얘기다.

10개 항의 질문을 통해 나이에 따른 상황 판단 능력에 평점을 낸 결과 40대 후반인 45세에서 49세 사이가 가장 우수한 6.4점의 연령대였고 80대 초반은 40대 후반의 절반밖에 안 되는 3.3 점에 그쳤다고 한다. 두뇌는 40대까지 꾸준히 발전하다가 40대 후반부터 퇴보한다는 이야기다.

하버드대학의 데이비드 레이슨(Laibson) 교수가 2009년에 노인들이 자기 집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지불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핀케 교수는 40대에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 3가지를 명심하라고 했다.

첫째, 재정 판단 능력이 60세가 넘으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나는 예외’라는 착각을 버려라.

둘째, 60세가 넘으면 복잡한 의사 결정을 피하라. 이를 40대 때부터 대비하라.

셋째, 40대부터 일정 소득이 있는 연금 상품을 준비하고. 투자가 자동 조정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전환하라.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한다. 미국의 전체 사기 사건 희생자 중 35%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한다. 자신의 판단력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항상 구하는 자세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성경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는 솔로몬왕도 늙어서는 매우 어리석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다투는 아기의 진짜 엄마를 가리는 유명한 판결도 젊을 때 이야기며. 성경에 소개된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도 모두 젊을 때의 일이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후궁들에게 빠져 어리석은 환락의 왕이 되어 버렸다.

공자는 나이 30이 되면 삶의 뜻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입(而立)이라 했고. 40이 되면 삶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거나 한다는 불혹(不惑)이어야 한다고 했고. 50이 되면 천명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시기라며 지천명(知天命)이라 했고. 60은 매사에 순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라며 이순(耳順)이라 했고. 70은 이제 마음 따라 휙 들림 없는 삶을 펼칠 나이라며 종심(從心)이라는 이름 지었다.

나는 이미 나이 칠십이 넘어 팔십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과

연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늙은 사람의 어리석은 막무가 내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해보곤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조언을 들으려고 애쓴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나이에 따른 적절한 삶이 때마다 달리 펼쳐져야 함을 설�파했다. 저마다 위치와 나이에 따른 삶의 방식이 달리함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제시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상황과 경우에 따른 합당하고 바른 판단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절대 필요하다.

나이에도, 조건에도, 자기 욕심에도,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마음을 비우는 수행(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치심이다.



## 『법구경』 해설 - 11

재가 신자 담미까 이야기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머무실 때 담미까라는 재가신도와 관련해 16번째 게송을 읊으셨다.

사위성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500여 명의 재가 신도들이 있었다. 이 모임의 회장 격인 담미까에게는 부인과 일곱의 아들과 일곱의 딸이 있었다. 처자들은 탁발 나온 스님들에게 매일같이 공양을 올렸고, 또 집으로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기도 했으며, 승가와 관련한 행사날에는 빠짐없이 갖가지 음식과 옷, 그리고 생필품들을 보시했다.

세월이 흘러 담마까도 늙고 병들어 갔다. 생명력이 점차 사그라지는 걸 느낀 담마까는 법문을 듣고 싶어 부처님께 사람



을 보내 말씀드렸다.

“제게 여섯 분 혹은 열여섯 분의 스님을 보내 주소서.”

부처님의 지시를 받은 비구들이 담마까의 처소에 가서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담마까는 “스님들이시여, 저는 병이 나 일어나지도 스님도 뵙지 못합니다. 경을 암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구들은 담마까를 위해 대염처경(사념처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이때 욕계 여섯 천상에서 천신들이 화려하게 장식한 황금마차를 타고 담마까를 데려가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 각기 자신들의 마차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말했다.

“마치 낡은 진흙 접시를 부셔버리고 황금 접시를 사용하듯 이 낡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담마까는 독송 듣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외쳤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스님들은 자기들에게 말하는 줄 알고 독경을 멈추었다.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고 말하며 스님들은 돌아갔다.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한 담마까가 아들딸들에게 “스님들은 어디 가셨느냐?”고 물었다.



“스님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멈추라고 한 말은 스님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아버지!”

담마까는 그간의 사정을 자식들에게 이야기 했다.

“아버지 마차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혹시 꽃다발이 있느냐?”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천상 세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어머니가 머무는 곳,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보살께서 머무시는 곳, 바로 뚜시바 천(도솔천)이 가장 즐거울 것입니다.”

“그럼, ‘이 꽃다발이 뚜시바 천의 마차에 걸리기를!’이라고 말하면서 공중에 던져라.”

자식들이 꽃다발을 던지자 공중에 멈추어 있는 마차의 장대에 걸렸다. 아이들의 눈에는 마차는 보이지 않고 꽃다발만 보였다.

“너희들의 눈에 꽃다발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꽃다발이 뚜시바 천에서 내려온 마차에 걸려있단다. 난 이제 뚜시바 천으로 갈련다.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마라. 너희



들도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법에 의지하여 살도록 해라.”

담마까는 곧바로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옷을 입고 키 큰 천신으로 태어나 천 명의 선녀의 시중을 받으며 거대한 황금 궁전에서 살았다.

한편 사원으로 돌아온 비구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런데 부처님, 독경하는 중간에 ‘잠깐 기다리시오, 잠깐 기다리시오.’라고 하여 독경을 멈추게 하여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고 하며 곧장 돌아왔습니다.”

“비구들이여, 거사가 그대들에게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여섯 천상 세계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내려온 천신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독경을 듣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 한 것이다.”

“부처님,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는 뚜시반 천신으로 태어났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살아서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죽어서도 즐거운 곳에 태어났습니다.”

“비구들이여, 정말 그렇다. 재가자거나 출가자거나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양쪽 세상에서 즐거워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 표지의 계송을 읊으셨다.

##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 12월 31일 : 송년 및 타종식 오후 11시 40분 대광사 종각
- ◆ 1월 3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월 19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월 25일 : 성도재일 철야법회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 055-545-9595

### 성도재일 철야법회

- 1월 25일 오후 8시 ~ 26일 오전 5시
- 동참금 : 2만원

### 입춘·삼재소멸기도

- 2월 2일~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눌삼재 : 돼지, 토끼, 양
- 동참금 : 2만원



## 대광후원회

(2025.11.19.~12.17.)

황두관 1만원	김병문 2만원	이우권 3만원	정대식 5만원
이순남 1만원	이인숙 2만원	구자민 3만원	김세훈 5만원
정진이 1만원	홍승운 2만원	이봉희 4만원	박진호 10만원
박미애 1만원	김태희 2만원	김주영 5만원	이병정열정여 30만원
변창인 2만원	윤숙희 2만원	차재원 5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지혜의말씀 후원(2025.11.19.~12.17.)

김영우 20만원 / 청향심(영) 1만원

♥ 설담장학회(2025.11.19.~12.17.)

주지스님 10만원 / 포교사단불교의례5기 10만원 / 신애란 10만원 / 이희숙 10만원  
 김승화 5만원 / 이봉희 5만원 / 이미경 5만원 / 김태희 3만원 / 김단우 3만원  
 제영길 3만원 / 진병천 3만원 / 박임선 2만원 / 구자민 2만원 / 이경화 2만원  
 변지오 2만원 / 이윤정 1만원 / 이유림 1만원 / 이순남 1만원



## 천일기도

- 400일 회향: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500일 입재: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설날합동차례재

- 2월 17일 오전 7시 설법전
- 영가 1위 2만원

## 정초기도

- 입재: 2월 19일 오전 10시 설법전
- 회향: 2월 23일 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5만원

##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종무소 545-9595



# 佛紀 2570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편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6년 02월 중순 ~ 03월 중순(매주 화, 수)	2026. 03월 중순(화) ~ 12. 중순(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6년 3월 중순 예정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3월 중순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포함)  
불교대학 1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총 45만원(학기별 납부가능)  
불대계좌 : 수협 921-61-001749 대광사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biriya@hanmail.net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21세기대광사